

1. 서론, 본론, 결론 구분이 없음.
2. 각주와 참고문헌이 없음.
3. 형벌의 무게감이 왜 줄어드는지에 관한 근거가 더 필요함.
4. 글의 논리적 전개와 구성에 더 관심을 갖고 글을 작성할 필요가 있음.

생물학적 노화를 멈추는 기술이 개발 중이다. 당신은 인간이 영원히 사는 과학기술에 찬성하는가?

나는 찬성하지 않는다.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는 인간은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긴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어느 한순간에는 과거의 자신에 대해 반성도 하고 자신을 스스로 격려하며 살아갈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평생 죽음을 맞이하지 않을 수 있는 세상이 온다면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어 죽음을 맞이하는 현재 시점에서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고 징역 30년의 형량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30년의 형벌이 크게 느껴질 것이고 두려움과 불안을 느낄 수 있다.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이라도 30년의 형벌이 두려워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확률이 있다. 하지만 죽음을 맞이하지 않는 세상이 온다면 30년의 형벌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자연스럽게 늙어가는 과정을 겪으며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고 죽음에 가까워짐에 따라 삶을 다르게 생각할 기회, 일상을 더 아름답게 생각하고 볼 기회 등이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노화를 멈추고 영원히 살게 된다면 먼 미래를 봤을 때 사람들이 더 이상 살 곳이 없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인간이 살 수 있는 공간은 유한하다. 하지만 인간의 삶이 무한하다면 기존의 인구에 새롭게 태어나는 인구까지 더하게 되면 인구는 셀 수 없이 많아질 것이라고 예상된다. 그렇다면 인간은 좁은 지구 안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만약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게 된다면 유명한 치료제를 개발한 연구원, 실력이 좋은 의사, 실력이 좋은 변호사 등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인물은 지킬 수 있으나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지 않을 수 있다면 과연 후배에게 좋은 가르침을 줄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긍정적인 답변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내가 만약 실력이 뛰어난 의사이고 유일하게 나만 할 수 있는 기술, 방법이 있고, 영원히 죽음을 맞이하지 않을 수 있다면 나는 평생 그 기술을 나만 알고 내가 더 큰 돈을 벌도록 할 것 같다. 이와 같은 상황이 온다면 우리는 더 이상 영재발굴을 하지 않을뿐더러 배움의 기회가 없어질 수도 있다.

인구가 점점 감소하는 지금도 청년들의 일자리가 부족한데 인구는 더 늘고, 영원히 죽지 않는 세상이 온다면 일자리는 점점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사라질 수도 있다. 베테랑, 전문가들이 본인들의 자리를 내어주기 싫어할 수도 있으며 대표로서도 굳이 새로운 사람을 뽑아 시간을 들여 교육하고 인수인계해줄 번거로움을 겪지 않아도 될 것이다.

인간이 늙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기술이 발전된다. 질병도 피할 수 있는가? 아니라고 답한다면 우리는 평생 죽지도 못하고 큰 고통에 시달릴 수도 있다. 그렇다. 라고 답한다면 의사, 간호사 등 질병에 관련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전부 직장을 잃게 될 것이다.

가장 중요한 논점은 생물학적 노화를 멈추는 기술이 개발되었을 때 과연 이 기술을 전 국민에게 적용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문제인 것 같다.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된다면 위와 같은 수많은 문제점이 존재한다. 원하는 사람에게만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문제점은 분명 존재한다. 만약 이 기술에 값어치를 매겨 비싼 값에 적용된다면 저소득층은 기회조차 없을 것이며, 그렇다면 빈부격차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이러한 수많은 문제를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해 줄 수 있어야 하고 대안이 꼭 필요하다.

가족을 생각하면 이 기술을 꼭 개발하여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도 있다. 하지만 영원히 함께 일 거라는 보장이 생긴다면 가족에게 소홀해질 수도 있다. 나는 내가 좋은 사람이 되려면 제일 먼저 가족에게 잘해야 하고, 가족을 먼저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더 테레사가 했던 말 중 지금 가족에게 돌아가 그들을 먼저 사랑하세요. 라는 말이 있다. 좋은 세상이 오려면, 국가 간 전쟁이 없는 세상이 오려면 가족을 먼저 돌보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범죄율을 낮추는 방법의 하나도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다. 가족을 정말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범죄를 저지를 확률은 현저히 낮다고 생각된다.

생물학적 노화를 멈춘다면 노인 질병은 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노인은 치매, 골절, 뇌출혈, 당뇨 등 질병에 취약하다. 이러한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젊은 나이에도 암 발병률이 높고 치매에 걸릴 수 있으며 다양한 질병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

종교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삶이 무한하다면 과연 천국을 가길 바라는 사람이 있을까? 과연 환생을 바라는 사람이 있을까? 큰 딜레마에 빠질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80대인 노인 중 대다수는 죽지 못해 살아간다고 한다. 부작용 때문에 백신을 맞지 못하는 사람도 많고 이미 노화를 겪어 일어나지도 못한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분도 계신다. 이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면 과연 윤리적으로 옳은 행동일까?

생물학적 노화를 멈추고 영원히 살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수많은 사람이 영원히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있는가? 석유, 나무, 산소 등 모두 무한한 것이 아니다. 언젠가는 다시 퇴화할 것이고 지구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다. 수많은 사람이 평생 일용할 양식이 있는가? 돼지, 소, 닭, 생선 등 많은 사람의 수요가 발생한다면 공급이 원활해야 할 텐데 전염병이 돌거나 집단 폐사할 경우 우리는 더 이상 일용할 양식이 없어질 수도 있다.

지구온난화가 아닌 지구 열대화가 진행 중인 지금도 언제 지구가 멸망할지 장담할 수 없다. 인구는 더 많아지고 영원히 살 수 있게 된다면 지구 열대화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중국 최초의 통일국가를 만든 진나라의 진시황제는 병마용, 만리장성, 도량형 통일 등 많은 업적을 남긴 인물로도 유명하지만, 자신이 이룬 통일 왕조를 두고 죽기 싫어 불로초를 찾아다닌 인물로도 유명하다. 하지만 인간이기에 죽음을 극복할 수 없었다. 여기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샘물이 있다. 바로 `트리 깎의 샘물`이다.

여기 우연히 숲속의 샘물을 마시고 영원한 삶을 얻게 된 한 가족이 있다. 영원히 사는 것이

축복이라면 이들은 세상을 돌며 죽지 않고 많은 경험을 하며 영원히 살 수 있다. 영원히 사는 것이 저주라면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많은 시간은 아무 소용이 없다.

작가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 저주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을 넣고 다시 생각해 보자. 영원히 살되 죽고 싶을 때 죽을 수 있다면 그래도 영생을 거부할 수 있을까?

2016년 tvN 드라마 <쓸쓸하고 찬란한 도깨비>에 서 불멸의 삶은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죽어 이별하는 고통을 낳는 것으로 표현되었다. 이것은 죽지 않는 도깨비와 유한한 삶을 사는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필연 적인 상황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불멸의 삶을 산다면, 누군가 먼저 죽어 헤어지는 고통은 없어진다. 대신 삶이 의미 있냐 없냐 만이 논의의 대상이 된다.

삶이 의미 있다고 여기는 이유는 끝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 말은 짧은 인생을 사는 무기력한 인간을 위로하기 위한 정신 승리'가 아니겠냐는 냉소적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다. 유한한 삶이 왜 의미를 만드는지는 '공포 관리 이론에 의해 설득력이 있다. 이론에 따르면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사람이 살려고 악착같이 노력하여 삶의 의미가 발생했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죽지 않을 때 우리는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끼지 않으므로 삶은 의미를 상실하는 것이 마땅하다. 영원한 삶이 주는 무의미한 방치는 지루함이라는 감정과 닿아있고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뒤따른다.

감정의 뿌리는 우리의 생존 본능과 관련되어 있다고 한다. 생존에 유리한 자극은 '쾌'이고 불리한 자극은 '불쾌'라는 기본 감정에서 수많은 감정으로 나뉘었다고 한다. 감정이라는 형태로 생존과 관련된 자극에 반응하는 이유는 위협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진화의 결과이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긴 세월을 거치며 생존과 별개로 그 자체가 의미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인식하지만, 뇌는 여전히 감정을 유발하는 자극을 죽고 사는 문제로 받아들인다.

감정의 기능과 근원에 비춰보았을 때, 영원히 살아 생존의 위협이 없다면 감정은 없어져야 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뱃속에 기능을 다한 맹장이 남아있듯이 한동안 감정이 쓰임이 없이 존재할 수 있지만 결국 없어질 것 같다. 우리가 느끼는 행복과 즐거움이라는 감정도 예외가 아닐지도 모른다. 이와 같은 유쾌한 감정들도 생존에 유리한 자극을 보상하기 위해 비롯된 것이니 말이다.

감정이 없어진 세상은 사건만 나열된 건조하고 차가운 곳일 것이다. 하지만, 괴로운 감정도 없어지니 나쁘지 않을지도 모른다. 불멸의 신들만 사는 세상은 즐거움도 괴로움도 없는 '무'와 같은 상태일까?

나는 도깨비를 보며 사는 동안 얼마나 외로웠을지, 힘겨웠을지 생각했다. 드라마 속에서는 부자이고 도깨비가 아닌 다른 사람들은 유한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비쳤지만 현실에서는 돈이 많아 부유한 사람이 많지 않다. 식량난 때문에 사람들끼리 싸워 끔

찍한 일이 초래될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정말 최악의 상황에서는 영원히 사는 삶을 선택하게 되더라도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인육을 먹게 되는 세상이 올 수도 있다. 불멸의 삶을 살지만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 타살로 인해 죽게 된다면 그것은 인권 보장도 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인간의 존엄성은 물론이고 아름다운 죽음도 사라질 것이다.

현재 개고기를 먹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졌고 관련된 시위도 거세졌다. 하지만 식량난 위기에 다다른다면 과연 개고기를 먹지 않을 수 있겠는가?

생물학적 노화를 멈추고 영원히 살 수 있다. 표면적으로만 보았을 때는 희망적일지 몰라도 현실적으로 깊게 파고든다면 인간은 더욱 힘들어질 것이다.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어야 하고, 유한한 삶 속에서 소중함을 느껴야 하고, 반듯하게 살아가며 눈 감는 그날 한 점 부끄러움이 없어야 하지 않겠는가?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은 자살률이 굉장히 높은 나라이며 복지수준도 낮은 나라이다. 세금을 더 내는 것을 반대하여 복지수준을 끌어올릴 수 없고 국가 재정 부족으로 복지는 물론이고 현물서비스, 현금서비스 물론 최소한의 보장만 받을 수 있다.

더 많은 사람을 평생 국가에서 책임지고 일자리를 마련하고 수많은 사람의 복지에 신경을 쓸 수 있는지도 문제라고 생각한다.

사회복지사는 봉사를 전제로 한 전문가이다. 하지만 내가 당장 춥고, 배고프고, 잘 곳이 없다면 누구 위해 봉사할 수 있겠는가?

사회복지사는 마음이 안정적이어야 하고, 여유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당장 내가 먹고, 살기 바쁘다면 마음의 여유는 점차 사라질 것이고 삶에 쫓겨 타인을 도울 수도, 도움이 필요한 타인을 볼 수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인간만이 가진 자유, 선택권, 인권, 존엄성 등 모든 것을 고려하였을 때 노화를 멈추는 것에는 동의할 수 있어도 영원히 사는 과학기술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출처] 트리갯의 샘물-늪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면 영생을 선택할 것인가?|작성자 시우